

인터넷상의 부모-아기건강정보, 아기친근병원 관련
웹사이트 내용 및 디자인 평가

Internet Parent-infant health Information, 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Website Content and Design

주저자 : 강남미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의료생명연구소 교수

Kang Nam Mi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공동저자 : 이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Lee Jung Eun

Professor,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교신저자 : 이운형

홍익대학교 대학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Lee Woon Hyung

Hongik University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서론

- 1-1. 연구배경
- 1-2. 연구목적
- 1-3. 연구가설

2. 연구 방법

- 2-1. 인터넷 건강정보의 연구 범위 및 내용
- 2-2. 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 분석 대상 및 내용
- 2-3. 자료분석방법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2. 인터넷 건강정보의 특성
- 3-3. 부모-아기 웹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 3-4. 부모-아기 웹 건강정보에 대한 만족도
- 3-5. 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 디자인, 내용평가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정보의 제공이 일반화되면서 건강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서비스 중인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기친근병원의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콘텐츠와 디자인 측면의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단계로 부모-아기건강 정보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특성에 관해서 1476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활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단계로 구체적으로 부모-아기건강 관련 웹사이트 평가로 269명의 여성들에 의해 50개 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의 디자인, 기술 및 내용에 관해 평가되었다.

연구결과, 인터넷 건강정보의 특성에서는 성별($p=0.039$), 자녀의 수유상태($p=0.000$)에 따라 인터넷상의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유무($p=0.302$), 직업과 최종학력($p=0.061$)에 따라서는 인터넷상에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관심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친근병원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디자인 평가에서는 네비게이션 바가 일관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나, 사용된 콘텐츠가 관련 웹사이트의 성격에 적합한지에 관한 내용에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웹사이트 내용 분석에서 사이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다음화면으로의 전환은 빠르나, 원하는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능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건강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성 높은 맞춤형 건강정보내용의 검색기능이 강화된 건강관리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내용 구성 모듈이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주제어

건강정보, 웹사이트 디자인, 여성건강

Abstract

Web-based healthcare information —may facilitate health promotion, howev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cluding health information utilization, interest in web-based information, web-design, skill and content may be associated with its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web-based healthcare information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1476 married women.. And, we examined whether degree of internet information utilization, interest and web-design, skill and content of 50 Baby Friendly Hospitals Initiative. A cross-sectional web-mail survey was employe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women or those who breastfed their infant were mo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web-based healthcare information compared to men or those with bottle-feeding, respectively. However, the degree of interest did not vary by marital status, occupation, or education. For the websites of Baby Friendly Hospitals, respondents agreed with consistency of navigation bar and high speed web browsing and recognized target group, but did not think that the web provided the detailed information on parental education. Our finding suggests the need to enhance the search engine and contents on the parental-child healthcare websit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Keyword

Health education, Website design, Women health

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병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부모-아기건강정보는 물론 무수한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건강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웹기반 부모-아기 건강정보 서비스가 표준화된 모듈과 인증절차없이 인터넷 건강정보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태선, 임은영, 강남미, 김기남, 2001; Cheng, Thompson, Smith, Pugh, and Stanley, 2003). 이에, 건강관리자들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건강정보의 근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용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Diaz, Griffith, Ng, Reinert, Friedmann, and Moulton, 2002; Plantin, & Danebackf, 2009).

환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의료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인식을 과소 추정하고,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과대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보원의 공신력, 인터넷 건강정보의 정확성 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결과 보고되었다(김봉철, 최명일, 장지영, 2012) 또 다른 연구(안병호, 박영옥, 2012)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건강수준이 양호할수록, 다수의 사이트를 이용할수록, 정보제공자가 전문가인 경우, 검색한 인터넷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건강관리행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현산, 김평중(2012)연구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품질요인인 사용성, 정보체계, 정보내용의 정보품질, 개인화, 개인 정보보호의 상호작용성이라는 주요 요인들이 도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은 1992년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해, 성공적인 모유 먹이기 10단계 등 평가를 통해 아기친근한 병원이 지정되고 있다(김경아, 신손문, 이근, 2005). 세계에서 2만개 이상 병원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전국 총 69개 병원을 지정하였으나, 재평가를 통해 2013년 2월 현재 42개 병원만이 아기친근병원으로 지정되어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기친근병원들은 임산부 산모교실, 모유수유여성 및 아가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상담하는 자조모임과 모유수유실과 착유실을 운영하며, 또한 분만후 모자동실을 운영하며 여성 및 아기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전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젖을 먹이겠다는 결심을 하더라도 여성의 의지는 가족이나 친구, 미디어, 병원의 의료진들 또는 인터넷 건강정보 등으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다(Cheng, Thompson, Smith, Pugh, and Stanley, 2003). 병원은 출산 전후에 모유수유에 대해 결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건강인식의 변화에 따른 여성 및 가족건강증진에 관련된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들의 전반적인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부모아기에 관련된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아기친근병원 사이트의 웹디자인, 기술 및 내용에 관한 평가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강교육 중에서도 인터넷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의 내용분석을 통해 현황 및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일부 선행연구(송용, 김애정, 이윤수, 유태우, 강남미, 2007; 정혜경, 송용, 강남미, 2010; 이운형, 강남미, 2011)를 진행한 바 있다.

인터넷 정보 제공시 사진과 설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속도와 정보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고은주, 목보경, 1999), 웹 사이트 디자인은 사이트의 목적과 콘텐츠 및 사용자의 욕구에 따른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며(신재욱, 황진원, 2012), 웹디자인 개발전략 수립시 소비자입장에서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진행된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규모 건강소비자들인 아기들 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특성과약은 물론 부모-아기 건강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의 디자인, 기술, 내용적인 측면을 건강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평가하여 효과적인 건강정보의 특성과 건강관리 웹사이트의 디자인기술과 내용 구성 모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건강소비자들이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기존 정보에 관련된 관심도와 어느 영역에서의 관심정보가 부족한가를 분석해 보고자 관련 웹사이트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여성소비자들이 실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아기친근병원 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 건강정보제공평가를 통해 부모-아동건강정보 정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아동 건강정보 웹기반 디자인, 기술 및 내용설계 및 표준 지침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3. 연구가설

선행연구결과들과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들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는 ‘성별, 결혼유무, 자녀수유상태, 직업, 학력 등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웹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가설1. 성별에 따른 웹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

가설2. 결혼유무에 따른 웹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

가설3. 자녀수유상태에 따른 웹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

가설4. 직업에 따른 웹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

가설5. 학력에 따른 웹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

2. 연구 방법

2-1. 인터넷 건강정보의 연구범위 및 내용

일단계 인터넷상의 건강정보평가는 매일 Family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아기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이트 내 설문 진행페이지에서 인터넷조사를 2009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1476명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부모-아기 웹 건강정보 평가지는 Linda, J.S., (1996)의 도구를 인터넷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적용한 선행연구(송용 외, 2007)에서 개발되어진 건강정보 웹 질문지를 적용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유무, 자녀유무, 수유형태, 모유수유 유무, 수유 정보습득 유무, 인터넷을 통한 건강교육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여성건강과 모유수유에 관련된 사항, 건강교육내용에 관련된 사항,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그림1].



[그림 1] 건강정보 웹 질문지

2-2. 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분석대상 및 내용

이단계 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 교육정보내용을 확인한 웹사이트 분석대상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지정한 50개의 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 중에서 영유아 모유수유 관련 교육정보 내용을 확인 후 조사가 진행되었다. 편이추출된 269명이 웹디자인, 기술측면 7항목과 내용설계 측면 9항목 등을 [그림2]과 같은 질문지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2] 아기친근병원 웹 평가도구

2-3. 자료분석방법

1) 빈도 및 백분율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건강교육 정보와 관련된 특성, 모유수유 관심정보 등은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2) 문항의 신뢰도검사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으로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성건강교육내용의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관련 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 기존 모유수유정보에 관한 인터넷정보의 만족도 차이는 집단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기법인 T-검정과 ANOVA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1476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25명(1.7%)이었고, 여자는 1451명(98.3%)이었다. 연령은 26 - 30세가 656명(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1 - 35세로 621명(42.1%), 25세 이하가 100명(6.8%)였으며, 36세 이상이 99명(6.7%)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의 결혼유무는 기혼 1457명(98.7%), 미혼 15명(1.0%) 그리고 이혼, 사별 또는 별거 4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주부가 1036명(70.2%)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236명(16.0%)였으며, 전문직 128명(8.7%), 서비스직 32명(2.2%), 학생이 13명(0.9%), 판매직 10명(0.7%), 생산직 8명(0.5%), 없음이 7명(0.5%), 파트타임 6명(0.4%) 순 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1045명(70.8%)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76명(25.5%), 대학교 재학이 44명(3.0%)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이 11명(0.7%)으로 가장 적었다.

자녀의 유무에 대하여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92명(19.8%)였으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84명(80.2%)이었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막내아이를 기준으로 수유상태에 대해 모유수유가 671명(56.7%)로 가장 많았고, 혼합수유 386명(32.6%), 인공수유 127명(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한 자녀수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명(1.9%), 1명이 957명(80.8%), 2명이 173명(14.6%), 3명이 29명(2.4%), 4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명(0.2%)였다. 모유수유의 기간은 모유수유한 막내아이를 기준으로 6개월 314명(26.5%), 12개월 312명(26.4%), 3개월 196명(16.6%), 1개월 154명(13.0%), 2개월 113명(9.5%), 18개월 72명(6.1%), 2년 이상 13명(1.1%), 2년이 10명(0.8%)순으로 나타났다.

특성	응답 빈도(%)	total N
성 별	남 25(1.7)	1476
	여 1451(98.3)	
연 령	25세 이하 100(6.8)	1476
	26 - 30세 656(44.4)	
	31 - 35세 621(42.1)	
	36세 이상 99(6.7)	
결혼	미혼 15(1.0)	1476
	기혼 1457(98.7)	
	이혼, 사별 또는 별거 4(0.3)	
직 업	사무직 236(16.0)	1476
	판매직 10(0.7)	
	서비스직 32(2.2)	
	생산직 8(0.5)	
	전문직 128(8.7)	
	주부 1036(70.2)	
학 령	파트타임 6(0.4)	1476
	중학교 졸업 11(0.7)	
	고등학교 졸업 376(25.5)	
	대학교 재학 44(3.0)	
자녀 유무	대학교 졸업이상 1045(70.8)	1476
	없다 292(19.8)	
수유 상태	있다 1184(80.2)	1184
	인공수유 127(10.7),	
	혼합수유 386(32.6)	
모유 수유 자녀수	모유수유 671(56.7)	1184
	없음 23(1.9), 1명 957(80.8)	
	2명 173(14.6), 3명 29(2.4),	
	4명 2(0.2)	
모유 수유 기간	1개월 154(13.0)	1184
	2개월 113(9.5)	
	3개월 196(16.6)	
	6개월 314(26.5)	
	12개월 312(26.4)	
18개월 72(6.1)		
2년 이상 13(1.1)		
2년이 10(0.8)		
2년이상 13(1.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인터넷건강교육정보 특성

1) 건강정보 관련 사항

조사대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얻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76명 가운데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65명(72.2%)로 경험이 없는 경우 411명(27.8%)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를 이용한지 얼마나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약 29.16개월이라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를 얼마나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46명(32.5%)이 하루에 총 53.01분, 404명(37.9%)이 1주일에 총 50.70분, 222명(20.8%)이 한 달에 총 38.45분 그리고 93명(8.7%)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건강정보를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106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이용 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의 신뢰성이 665명(62.4%)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이 377명(35.4%), 인터넷 사이트의 목적이 20명(1.9%), 인터넷 사이트의 디자인 및

기술이 3명(0.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평균적으로 374명(35.1%)이 하루에 총 43.25분, 380명(35.7%)이 1주일에 총 53.43분, 215명(20.2%)이 한달에 총 42.31분 그리고 96명(9.0%)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 부모 및 아기건강정보에 관한 사항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모 및 아기 건강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험여부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7명(4.4%),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18명(95.6%)였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18명을 대상으로, 부모 및 아기건강교육정보의 이용정도에 조사한 결과, 가끔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8명(48.9%)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자주가 460명(45.2%)였고, 몇 번밖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명(5.9%)로 가장 적었다. 또한 교육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약간유용이 523명(51.4%)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유용 337명(33.1%), 보통이 149명(14.6%), 별로 유용하지 않음이 8명(0.8%),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0.1%)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정보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380명(37.3%)이 건강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71명(26.6%)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교육이 별로 유용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고, 기타관심이 268명(26.3%), 건강교육에 대한 정보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99명(9.7%)이었다.

3) 수유에 관한 교육정보

조사대상자가 보건의료인들을 통하여 수유에 관한 교육정보를 웹을 통해 얻은 경험에 대해, 응답자 1476명 가운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016명(68.8%)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460명(31.2%)보다 많았다. 이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60명에 대해서, 이용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명(6.3%)이 매우자주라고 응답했고, 209명(45.4%)이 가끔이라고 응답했고, 222명(48.3%)이 수유에 관한 교육정보의 이용정도가 몇 번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들을 통한 수유 교육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약간유용하다고 191명(41.5%)이 응답했고, 매우유용이 143명(31.1%), 보통이 98명(21.3%), 별로 유용하지 않음이 24명(5.2%), 전혀 유용하지 않음이 4명(0.9%) 순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수유에 관한 교육정보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관심이 384명(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유정보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301명(29.7%),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수유정보가 별로 유용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는 179명(17.6%), 수유에 대한 정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51명(14.9%)이었다. 그리고 수유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 757명(51.3%)이 간호사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462명(31.3%)이 의사, 151명(10.2%)이 기타, 85명(5.8%)이 교수(간호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의대 교수, 약대 교수), 19명(1.3%)이 영양사, 2명(0.1%)이 약사라고 응답하였다.

웹상의 수유교육정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에 대해서, 수유에 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761명(51.6%)이었고, 원하는 구체적인 적절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65명(45.1%)이었고, 수유에 관한 부정적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명(1.1%)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하여 가장 얻고 싶은 수유에 관련된 지원유형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도움의 물질적 도구적지지가 608명(41.2%)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의 정보적지지가 324명(22.0%), 수유에 관한 관심·공감 등의 정서적지지가 292명(19.8%), 수유관심과 그룹활동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지지가 149명(10.1%), 수유에 관한 개인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자긍심(자존심)지지가 103명(7.0%)이었다. 또한 수유에 대한 교육정보를 이전까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었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701명(47.5%)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이 202명(13.7%), 신문·잡지·전문서적이 146명(9.9%), 공개교양강좌가 119명(8.1%), 보건소가 82명(5.6%), TV/라디오가 21명(1.4%), 학교 4명(0.3%) 순 이었다. 그리고 수유에 대한 교육정보를 앞으로 어디를 통해 얻고 싶느냐 는 문항에 대해, 인터넷이 814명(5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이 176명(11.9%), 공개교양강좌가 171명(11.6%), 보건소가 106명(7.2%), 신문·잡지·전문서적이 80명(5.4%), TV/라디오가 59명(4.0%), 학교가 4명(0.3%)순으로 나타났다.

3-3. 부모-아기 웹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1) 관련문항 신뢰도 분석

건강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이 0.878로 측정되었고, 이는 문항간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심도 차이 분석

가설1. 성별에 따른 관심의 차이는 T-검정 결과, t -값=2.063, 자유도=1474, 유의확률 0.039(<유의수준=0.05)이므로 성별에 따라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2. 결혼유무에 따른 관심의 차이는 ANOVA 결과, F -값=1.197, 자유도=2, 유의확률=0.302(> 유의수준=0.05)이므로 결혼유무에 따라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설3. 자녀의 수유상태에 따른 관심의 차이는 ANOVA 결과, F -값=28.231, 자유도=2, 유의확률=0.000(<유의수준=0.05)이므로 자녀의 수유상태에 따라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4. 직업에 따른 관심이 차이는 ANOVA 결과, F -값=1.438, 자유도=8, 유의확률=0.176(>유의수준=0.05)이므로 직업에 따라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설5. 최종학력에 따른 관심의 차이는 ANOVA 결과, F -값=2.457, 자유도=3, 유의확률=0.061(>유의수준=0.05)이므로 최종학력에 따라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표 2].

검정 내용	검정 결과(유의수준=0.05)		
	검정통계량(t/F)	p-value	결과
성별	2.063(t)	0.039	차이가 있다.
결혼 유무	1.197(F)	0.302	차이가 없다.
자녀 수유 상태	28.231(F)	0.000	차이가 있다.
직업	1.438(F)	0.176	차이가 없다.
최종 학력	2.457(F)	0.061	차이가 없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심차이 분석

3-4. 부모-아기 웹 건강정보에 대한 만족도

1) 관련문항 신뢰도 분석

기존 모유수유정보에 관하여 인터넷정보의 만족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항목간의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이 0.970로 측정되었고, 이는 문항간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차이 분석

가설1. 성별에 따른 관심의 차이는 T-검정 결과, t -값=-0.503, 자유도=1474, 유의확률 0.615(> 유의수준=0.05)이므로 성별에 따라 인터넷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설2. 결혼유무에 따른 관심의 차이는 ANOVA 결과, F -값=0.529, 자유도=2, 유의확률=0.590(> 유의수준=0.05)이므로 결혼유무에 따라 인터넷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설3. 자녀의 수유상태에 따른 관심의 차이는 ANOVA 결과, F -값=0.488, 자유도=2, 유의확률=0.614(> 유의수준=0.05)이므로 자녀의 수유상태에 따라 인터넷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설4. 직업에 따른 관심이 차이는 ANOVA 결과, F -값=0.940, 자유도=8, 유의확률=0.482(> 유의수준=0.05)이므로 직업에 따라 인터넷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설5. 최종학력에 따른 관심의 차이는 ANOVA 결과, F -값=2.069, 자유도=3, 유의확률=0.102(> 유의수준=0.05)이므로 최종학력에 따라 인터넷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표 3].

검정 내용	검정 결과(유의수준=0.05)		
	검정통계량(t/F)	p-value	결과
성별	0.503(t)	0.615	차이가 없다.
결혼 유무	0.529(F)	0.590	차이가 없다.
자녀 수유 상태	0.488(F)	0.614	차이가 없다.
직업	0.940(F)	0.482	차이가 없다.
최종 학력	2.069(F)	0.102	차이가 없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차이 분석

조사 대상자 1476명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에 관련 하여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였다. 총 25문항의 설문 내용으로 내용관심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건강과 건강정보교육의 관심정도에 대해서는, 56.5%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반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수유교육에 대해서는, 36.1%이 매우 관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수유에 따른 건강관리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보통이 46.8% 매우 관심있다고 나타났다. 임신 시 유방관리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1.6%나타났다. 임신 시 체중 및 비만관리법에 대해서는, 55.6%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수유 시 식이규칙 정보에 대해서는, 55.7%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수유와 엄마건강문제에 대해서는, 55.4%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임신생리 및 유방변화에 대해서는, 보통이 46.4%,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1%으로 나타났다. 수유를 위한 임부건강관리에 대해서는, 52.4%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수유 시 금할 음식, 약물,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64.0%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수유 중 불편감 관리법에 대해서는, 50.1%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수유의 금기사항에 대해서는, 58.9%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여성의 모유수유방법에 대해서는, 보통이 44.2%, 매우 관심있다 26.5%, 직장여성의 모유보관법에 대해서는, 보통이 44.9%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여성의 모유수유 시설활용법에 대해서는, 45.9%, 매우 관심있다 24.7%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모유보관법에 대해서는, 41.8%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수유부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51.8%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는, 48.8%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체조에 대해서는, 51.0%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모유분비 촉진법에 대해서는, 59.5%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산후 비만관리법에 대해서는, 60.0%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아기와 엄마역할 및 애착증진법에 대해서는, 59.1%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아기와 아빠역할 및 애착증진법에 대해서는, 60.9%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모유수유 지속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58.8%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성공적인 엄마 젖 먹이기 10단계에 대해서는, 85.85%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했다.

3-5.아기친근병원 웹사이트 디자인, 내용평가

웹사이트 건강정보 중 시각적인 정보는 전체 정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인 만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50개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디자인/기술면, 내용 측면에 대해 웹사이트를 평가하였다. 이때 활용된 연구도구는 정보디자인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행해졌던 선행 사례연구(이운형, 강남미, 2011)를 토대로 하여, 평가 체크리스트는 정혜경(2010)의 연구에서 사

용된 항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항목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 269명이 교육정보내용을 확인한 50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빈도는 서울아산병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모유수유 관련 사이트가 각각 9명(3.3%)으로 가장 응답빈도가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응답한 것을 [표4]에서 알 수 있다.

웹사이트	응답빈도(%)
서울아산병원	9(3.3)
인구보건복지협회모유수유사이트	9(3.3)
강남차병원	7(2.6)
건국대학교병원	7(2.6)
순천향대학교병원	7(2.6)
포항여성아이병원	7(2.6)
수원삼성여성병원	7(2.6)
제일병원	6(2.2)
경북대학교병원	6(2.2)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6(2.2)
일산동원산부인과	6(2.2)
강릉아산병원	6(2.2)
울산현대여성의료센터로즈메디	6(2.2)
고양 봄여성병원	6(2.2)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6(2.2)
광주에덴병원	6(2.2)
경희대학교동서신의학병원	6(2.2)
관동대학교명지병원	6(2.2)
모유수유클리닉	6(2.2)
대한모유수유의학사회	6(2.2)
삼성서울병원	5(1.9)
분당메디파크산부인과병원	5(1.9)
익산제일산부인과	5(1.9)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	5(1.9)
은혜산부인과	5(1.9)
울산보람여성병원	5(1.9)
수원연세모아병원	5(1.9)
성남참산부인과의원	5(1.9)
분당제일여성병원	5(1.9)
구미쉬즈산부인과	5(1.9)
인정병원	5(1.9)
천안혜성산부인과병원	5(1.9)
울산임태군산부인과의원	5(1.9)
제주김순선조산원	5(1.9)
포천중문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5(1.9)
이천양정분산부인과의원	5(1.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5(1.9)
국민건강보험공단	5(1.9)
부산일신기독병원	4(1.5)
일신조산원	4(1.5)
광명제일산부인과	4(1.5)
안양샘여성병원	4(1.5)
인천서울여성병원	4(1.5)
울산MS여성병원	4(1.5)
파주현대미소래병원	4(1.5)
청화병원	4(1.5)
부천삼성미래산부인과	4(1.5)
청주프리모산부인과병원	4(1.5)
광주보람병원	4(1.5)
이천마리나산부인과	4(1.5)

[표 4] 교육정보내용을 확인한 웹사이트(N=269)

1) 웹사이트 디자인/기술면 평가

웹사이트의 디자인/기술면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 5점척도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 네비게이션바가 일관성(위치, 모양, 색깔)이 있다 항목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항 목(n=269)	평균	표준 편차
메인페이지디자인은사이트내용을잘설명하고있다	3.52	0.93
텍스트는 읽기 편하다	3.63	0.89
눈에 잘 띄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뉴명을 가지고 있다	3.58	0.98
네비게이션이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3.61	1.00
네비게이션바가 일관성(위치, 모양, 색깔)이 있다	3.74	0.94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37	1.10
사용된 콘텐츠 디자인/기술이 웹사이트의 성격에 적합하다	3.20	1.32

[표 5] 웹사이트 평가 - 디자인/기술면

2) 웹사이트 내용면 평가

내용면에 대한 웹사이트 평가는 리커트 5점척도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을 조사했고 결과는 사이트는 다음화면으로의 전환이 빠르다라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내용을 전반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항 목(n=269)	평균	표준 편차
사이트의 운영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다	3.63	0.95
사이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3.87	0.93
사이트에는 부모-아기교육목적에 합당한 정보가 제공되어있다	3.22	1.31
사이트는 부모-아기교육내용을 전반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2.91	1.34
사이트는 부모-아기교육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다	3.01	1.31
사이트는 원하는 부모-아기교육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2.94	1.34
사이트는 방문자와 운영자간의 상호의견교환이 가능하며 활발하다	3.30	1.14
사이트는 다음화면으로의 전환이 빠르다	3.93	0.85
사이트는 부모-아기교육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3.31	1.28

[표 6] 웹사이트 평가 - 내용면

4. 결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 이용 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의 신뢰성이 가장 높았고, 내용, 목적, 디자인 및 기술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기를 둔 여성들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항목은 성공적인 엄마 젖 먹이기 10단계로 매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관심에 차이는 성별, 자녀의 수유상태에 따라 인터넷상의 여성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유무, 직업과 최종학력에 따라 인터넷상에 건강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아기 웹 건강정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성별, 결혼유무, 자녀수유상태, 직업과 최종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친근병원 건강정보 관련 웹사이트 평가에서 디자인 기술의 네비게이션 바가 일관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나, 사용된 콘텐츠가 관련 웹사이트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웹사이트 내용 분석에서 사이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다음화면으로의 전환은 빠르나, 원하는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능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건강정보 사이트 사용자들은 사이트의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목적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감성에 관계된 디자인적인 측면은 크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특성 상 사용자들이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수행성 측면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아기건강 웹사이트의 디자인은 심미적인 요소보다는 정보 검색의 수행성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되어야 하며 사이트의 디자인 요소들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콘텐츠 측면의 평가 결과가 네비게이션 디자인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온 결과는 현재 기존 웹사이트들의 콘텐츠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콘텐츠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수행도가 중요시되는

웹사이트에서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하기에 콘텐츠 측면의 보완과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아기건강 웹사이트의 디자인, 기술, 내용적인 측면을 건강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평가하여 효과적인 건강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성 높은 맞춤형 건강정보내용의 검색기능이 강화된 건강관리 웹사이트의 디자인기술과 내용 구성 모듈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봉철, 최명일, 장지영 (2012).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의사와 환자간의 인식차이 비교 : 상호지향성 모델의 적용, 『광고학연구』, 23(5), 63-84.
- 송용, 김애정, 이윤수, 유태우, 강남미 (2007). 한국 청소년의 모유수유 관련 건강교육을 위한 e-정보전략.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4), 487-493.
- 고은주, 목보경 (1999). 웹디자인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마케팅과학연구』, 4, 111-131.
- 김경아, 신손문, 이근 (2005). UNICEF/WHO 개발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의 효과 연구. 대한주산의학회잡지, 16 (1), 37-48.
- 신재욱, 황진원 (2012). 웹 사이트의 감성디자인 요소에 따른 선호도 평가 연구 - 백화점 웹 사이트를 중심으로 - 35, 153-162.
- 신현산, 김평중 (2012).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소비자 중심 품질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7 (7), 129-138.
- 안병호, 박경옥 (2012).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과 건강관리 행동 간의 관련성. 『대한보건연구』, 38(2), 67-80.
- 이운형, 강남미 (2011).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의 일러스트레이션 활용. 33, 375-384.
- 정혜경, 송용, 강남미 (2010). 웹기반 모유수유 교육정보의 내용분석 및 사용성평가. 『한국디자인포럼』, 26, 117-128.
- 현대선, 임은영, 강남미, 김기남 (2001). 보건소와 아기친근병원에서의 모유수유 산전 교육 및 지원 실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6(4), 678-685 .
- Plantin, L. & Danebackf, K. (2009). Parenthood, information and support on the internet.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parents and professionals online, BMC Family Practice, 10, 34.

<http://www.biomedcentral.com/1471-2296/10/34>

- Cheng, W-C., Thompson, C. B., Smith, J. A. , Pugh, L., and Stanley, C. (2003). A Web-Based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Perinat Educ. Winter*; 12(1), 29 - 41.
- Diaz, J. A., Griffith, R. A., Ng J. J., Reinert, S. E., Friedmann, P. D. & Moulton, A. W. (2002). Patients' Use of the Internet for Medical Information, *J Gen Intern Med.* 17(3), 180 - 185.
- Linda, J. S. (1996). A Score Sheet for Evaluating Breastfeeding Educational Materials *J Hum Lact .* 11: 307-311.